

96

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망막색소변성증

성별	남	나이	53세	직종	기자, 논설위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이○○(남, 53세)은 1973년부터 편집부, 체육부, 정치부, 국제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1992년부터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착용하다 시야의 흐림과 시력감퇴가 악화되어 1997년 7월 안과를 방문하여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

1973년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하여 27년 간 M신문, P일보, K신문에 근무하였다. 1990년 K신문이 재 발행되면서 국제부장, 정치부장, 제2사회부장, 기획특집부장, 편집국부국장을 맡아 근무하였으며, 1990년부터는 외근근무는 없이 주로 내근근무를 하였다. 1999년 4월부터는 현직인 논설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. 1992년 부장시절부터 시력이 약화되어 안경을 착용하고 근무하였으며, 1997년 편집국부국장으로 재직 중 기사의 지면안배, 컴퓨터를 통한 연합뉴스기사 검색, 축쇄판대장을 통한 문장과 글씨의 오자 수정 등을 하였다. 당시의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약 14시간이었으며, 그중 약 6시간 정도가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작업이었다. 주당 6일 근무하였으며, 한 달에 3~4번은 새벽 2~3시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. 1997년 5월부터 국제신문이 석간에서 조간으로 전환되면서 약 4개월 간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육체적 피로와 눈의 피로가 집중되었다고 한다. 이때부터 시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고 하며, 안과개인병원을 방문하여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받았다. 치료는 특별한



방법은 없었으며, 비타민요법을 시행하면서 편집국부국장의 일을 계속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
건강진단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특별한 질병은 없었다. 망막세포변성증은 대부분 유전질환으로 열성유전, 반성유전, 우성유전 형태를 나타낸다. 현재까지 알려진 유전자변이는 1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, 근로자 이○○의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가계도를 볼 때 반성유전의 가능성이 있었다.

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이○○에서 발생한 망막색소변성증은

- ① 27년 간의 기자생활 기간 중 1994년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사검색 및 사설 및 칼럼을 집필하여 눈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되나,
- ② 망막색소변성증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유전인 것으로 밝혀져 있고 가계도를 파악한 결과 반성유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
- ③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눈에 피로를 주는 작업에 의해 망막색소변성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고 명확히 밝혀진 보고는 없으므로, 현재의 의학적 지식에 의존하여 판단할 때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.